

## 品行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김 경 희 이 희 정\*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品行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개념을 비교하고자 한 탐색적 연구이다. 평균연령 16세인品行장애 남자 청소년 30명과 일반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3개의 도덕적 위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 대한 도덕적 정서 반응과 도덕적 정서 귀인을 분석하였다. 도덕적 정서 반응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가해자 입장에서品行장애 청소년 집단은 기쁨을, 일반 청소년 집단은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입장에서 도덕적 정서 반응으로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는 분노가,品行장애 청소년 집단에서는 당황 정서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도덕적 정서 귀인은 공통적으로 일반 집단은 공정성이나 정당성과 같은 도덕적 측면과 관련하여 귀인하였으며,品行장애 청소년 집단에서는 물질적 결과와 관련된 귀인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발달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미래의 연구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 형성과 같은 발달 과업을 가지는 중요한 시기이며 주위의 여러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심리 사회적 부적응 상태에 빠지거나 일탈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일탈 행동은 거짓말, 도벽, 무단 결석, 가출, 약물 사용, 패싸움, 혼숙 등이 있는데 이를 임상적 측면에서는 '品行장애(conduct disorder)'라고 진단(DSM-IV, 1994)하고 있다.

이같은品行장애의 원인과 발달에 따른 변화과

정을 설명하는 접근들에는 의학적 접근, 정신 분석적 접근과 사회 문화적 접근과 이를 통합한 다양한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다(Kazdin, 1997). 최근에는品行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 발달과 자아 발달에 대하여 인지 발달 이론(Kohlberg & Candee, 1991)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상황에서의 동기와 정서 및 성격 발달 과정의 연구를 통합하는 사회 인지적 접근에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Arsenio & Lover, 1995).

\* lkj-222@hanmail.net

1950년부터 1970년대에는 인지 발달적 접근에 근거하여 Kohlberg의 도덕적 딜레마와 이를 응용한 도덕 판단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청소년과 품행장애 또는 비행 청소년의 도덕 추론 단계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Smetana, 1990).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품행장애 청소년의 사회 도덕적 특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품행장애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애착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정상적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며(Kaplan & Sadock, 1988), 대부분 자존감이 낮고, 타인의 감정, 바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자신의 냉담한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Moffitt, 1990).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도덕 발달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비행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도덕적 추론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며(Smetana, 1990), 도덕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도덕적 정서(Hoffman, 1975)와 도덕적 상황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와 관찰자 입장과 같은 시각의 차이나 도덕과 관련없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도와 같은 사회 인지적 측면이 관련된다(Saltzstein, 1994).

품행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공감 능력의 차이에 관한 연구(Ellis, 1982), 학대받은 아동의 도덕 판단과 도덕 정서 및 정서 귀인에 관한 연구(Smetana, Toth, Cicchetti, Bruce, Kane & Daddis, 1999)를 살펴보면, 인지적 측면에서의 기능 수준에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적 적용에 대한 반응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품행장애 청소년의 정서적 차원에서의 공감 능력이 일반 청소년보다 지연되어 있다고 하였다(Cohen & Strayer, 1996). Cohen과 Strayer(1996)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일반 청소년과 품행장애 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공감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이같은 공감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으로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정서적 상황에 관여할 때 자기 중심적 고통을 더 많이 느끼며, 자기에 초점을 둔 정서는 타인의 정서와 욕구에 대한 공감과 경쟁하게 되는 데(Batson, Fultz & Schoenrade, 1987), 이때 타인의 욕구에 대한 인지적 과정과 충돌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품행장애 청소년의 타인에 대한 낮은 공감적 정서와 자신의 입장에 대한 높은 정서적 고통은 결국 공감과 관련된 인지적 과정에서의 수준을 낮추게 한다는 것이다.

Arsenio, Sacks와 Shea(1999)의 연구에 따르면, 도덕적 정서 반응에서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도덕적 위반 상황에서 추론된 비행 청소년의 정서적 반응은 가해자 입장에는 죄책감보다는 기쁨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이같은 도덕적 정서 반응에 대한 귀인으로서 도덕적 이유보다는 물리적 이득에 초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Arsenio와 그의 동료들(1999)은 이러한 물질적 이득에 초점을 두는 것은 품행 장애 청소년으로 하여금 일반 청소년에 비해 공격성과 괴롭힘을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보게 되는 이유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은 부정적 정서, 예를들면 분노, 슬픔 또는 당황한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에 대한 도덕적 정서 귀인으로는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모두 도덕적 이유에 초점을 두었다. 우울증을 동반한 품행장애 청소년의 경우, 주관적으로 지각된 내적 안정감이 부족하고 소외감을 강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타인의 감정 상태를 느끼고 그와 유사한 정서 반응을 하는 공감 능력이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여 볼 때 적다고 하였다(전덕임·양익홍, 1998).

품행장애 청소년의 도덕적 위반 상황에서의 정서 반응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품행장애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더 어린 아동들이 나타내는 정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Arsenio & Fleiss, 1996; Arsenio, Sacks & Shea, 1999; Cohen & Strayer, 1996). 예컨대 Arsenio와 Fleiss(1996)는 2학년과 5학년인 품행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들

대상으로 사회 도덕적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5학년인 품행장애 아동은 2학년인 일반 아동이 나타내는 것과 유사한 정서 반응을 나타냈다. 즉 품행장애 아동은 인습적 규칙을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이 슬퍼한 반면, 신체적 괴롭힘과 같은 도덕적 규칙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는 덜 두려워하였다. Arsenio와 Fleiss(1996)는 이같은 차이를 품행장애 아동들은 사회 도덕적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있어서 일반 아동에 비하여 더 다양한 상황적 단서들에 주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품행장애 아동은 돕기와 나누기와 같은 대인간 상황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고 권위나 물질적 결과에 집착하여 보다 어린 아동들이 많이 나타내는 슬픔에 대한 지각은 높은 반면, 신체적 공격성으로 인한 이득을 과대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덜 지각하여 부적응적 행동을 지속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도덕적 정서 귀인이란, 도덕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의 원인에 관한 추론을 뜻한다. 도덕적 갈등은 종종 도덕적으로 이탈된 행동으로 인한 보상이나 또래의 압력이나 권위와 같은 외적 힘과 관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덜 진보된 추론은 외적 상황적 요소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되는 반면, 더욱 진보된 추론은 도덕적 결정에 있어서 내적 요소에 비중을 두게 된다. 그러므로 덜 진보된 추론 수준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결정일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Saltzstein, 1994).

품행장애 청소년들과 같이 반사회적이고 공격적 행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에 초기 신경계 발달에 역기능을 초래하여 기본적 각성 수준과 공포와 관련된 신호에 과반응적이 되어 일반 아동과 청소년과는 다른 정서적 조직화를 나타낸다고 한다(Richters & Cicchetti, 1993). 즉 품행장애 아동들은 계속해서 반사회적 행동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반 아동에 비하여 예기적(anticipatory) 불안이나 공

포 반응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일탈과 비행 행위를 아무 거리낌없이 수행함에 따라 성인이 되면 더욱 다양한 위험한 행동을 일삼게 된다고 한다. Rotenberg (1978)의 변별적 민감화(differential insensitivities) 개념에 따르면, 초기에 불안을 야기시키는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덜 예민해지고 적응이 되도록 인간의 신경 체계는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매우 위급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소방대원이나 응급 의료원들에게는 적응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동을 계속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역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품행장애 청소년 중에서 특히 초기 아동기부터 품행장애가 나타난 경우, 분노, 저항과 적대감 수준은 일반 아동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Hinshaw, Lahey & Hart, 1993). 발달적 상호작용론 시각에서 볼 때에도 이같은 초기 신경계의 변화는 품행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도덕적 위반 상황에서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의 분노, 공포 등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Buck, 1999).

최근 품행장애 청소년에 관한 중재와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발달 정신병리적 접근에서는 일탈된 발달 경로에서 정상 발달로의 이행을 촉진해 줄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하는 보호 요소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환경적 차원에서의 보호 요소는 사회적 환경으로 부터 주어지는 바람직한 양육, 비행 청소년의 바람직한 수용 시설 및 갈등이 적고 일관성이 있는 환경적 분위기, 비행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성인과의 관계(Losel & Bliesener, 1994) 등이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볼때 IQ, 인지 및 사회 인지적 유능성(Rutter, 1985)과 품행장애 및 비행 청소년의 죄책감 정서에 대한 지각의 증가 역시 보호 요소(Born, Chevalier & Humblet, 1997)가 될 수 있다.

한편 성공적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은 발달의 각 단계마다 변화하므로(Lerner, 1995) 매 단계

표 1.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표집 기관과 특성

품행장애 청소년		일반 청소년	
표집 기관	청소년의 특성	표집 기관	청소년의 특성
서울시 소재 근 청소년 회관	절도 죄로 소년 심판 규칙 제 34 조에 의거하여 4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20명과 아동 상담소로부 터 위탁된 청소년 2명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인문계 중·고등학교 3곳	지능이 정상 수준이고, 청소년 가족의 사회 경제적 계 층: 중·하류이면서 학생 생 활 기록부와 담임 교사의 행동 평가에서 무단 결석, 비행이나 물질 남용의 경력 이 없는 청소년 30명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 시설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는 청소년 1명과 친부모의 경 제적 사정으 로 맡겨진 청소년 2명		
경기도 소재 신경정신과 의원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중 류인 품행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인 청소년 5명		

마다 일탈된 발달 경로에서 정상 발달로 이행하게 하는 보호 요소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기초 자료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정도의 정서 인식의 증가가 비행이나 공격적 행동을 억제하여 탄력적 적응을 이룰 수 있는가를 알고 난 후에 유사한 발달 단계의 집단에 대한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품행장애 청소년 중 반 사회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는 남자 품행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 가지 부도덕한 가설적 이야기를 제시한 후 이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과 도덕적 정서 귀인의 차이를 비교하여 이들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방 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남자 품행장애 청소년 30명과 일반 청소년 30명이었다. 품행장애 청소년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근로 청소년 회관 1곳, 사회복지 시설 1곳 및 S 신경정신과 1곳, 총 3개의 기관에서 DSM-IV 준거에 따라 정신과 의사와 임상 심리학자에 의해 품행장애로 진단받은 남자 청소년 30명이었다. 이들은 품행장애 이외의 다른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없는 청소년들이었으며 지능 수준이 정상적 범위(IQ 80-119)에 속하며 1983년도에서 1985년도 사이에 출생한 만 15-17세 청소년이었다. 비교 집단인 일반 청소년 집단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인문계 중·고등학교 3 곳에 재학중인 품행장애 집단과 동일한 연령인 남자 청소년 30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표집 기관과 청소년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2. 연구 도구

#### 1) 도덕적 정서 반응과 도덕적 정서 귀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덕적 정서 측정 도구는 Arsenio, Sacks와 Shea(1999)가 사용했던 도구 내용을 번역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었다. 이 도구는 두 명의 친구 관계에서 벌어진 신체적 괴롭힘, 훔치기와 거짓말이라는 도덕적 위반 행동에

표 2. 도덕적 위반 상황에 대한 정서 반응의 종류와 예

정서 종류	정 서 예
기쁨	기쁘다, 즐겁다, 편안하다, 흐뭇하다, 유쾌하다
슬픔	슬프다, 아쉽다, 무기력하다
분노	화나다, 분하다, 억울하다
공포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걱정스럽다,
당황	당혹스럽다, 놀라다, 긴장되다, 흥분하다
죄책감	죄책감, 미안하다, 후회스럽다

관한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는 도덕적 위반 사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등장하며 이러한 도덕적 위반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도덕적 정서 반응과, 왜 그렇게 느꼈는가 하는 도덕적 정서 귀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세 가지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야기 1>은 신체적 괴롭힘에 관한 이야기이다. 두 친구가 음악회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가 표가 다 없어질 것 같아, 뒤에 있던 친구가 다른 친구의 등을 떠밀어서 결국 기다리던 줄에서 밀어내고 마지막 표를 받게 된 상황이다.

<이야기 2>는 훔치기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 친구가 이모부로부터 선물받은 청바지를 학교 사물함에 넣어 두고 체육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간 사이 다른 친구가 그 친구의 청바지를 몰래 훔치는 상황이다.

<이야기 3>은 악의적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이다. 해를 입힌 한 친구는 상대 친구에게 뼈를 나눠주는 행사를 벌이는 이동용 자동차의 위치를 고의로 잘못 가르쳐 주어서 상대 친구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실제 이동용 자동차가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다.

도덕적 정서 반응은 강혜자와 한덕웅(1994)의 정서에 관한 용어들과 Shaver, Schwartz, Kirson과 O'Connor(1987)에 의한 정서 범주, 그리고 Arsenio, Sacks와 Shea(1999)의 연구와 품행장애 및 일반 청

소년과의 1, 2차 예비 면접 자료에 근거하여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당황, 죄책감의 6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세가지 이야기 각각에 대하여 나타난 정서 반응에 1점씩 채점하였다. 정서 종류별 분석자간 일치도를 구하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닌 일반 청소년 20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산출하였다. 도덕적 정서 반응에 관한 본 연구자와 다른 평정자간 일치도는 Pearson 상관 계수로 .86이었다. 도덕적 정서 반응의 종류와 청소년의 정서 반응의 예는 <표 2>와 같다.

도덕적 정서 귀인의 하위 범주는 <표 3>에 따라 구분되었다. <표 3>의 범주는 Arsenio와 Kramer(1992)와 Arsenio와 그의 동료들(1999)이 최종 분류한 범주들이다. 세가지 이야기 각각에 대하여 나타난 정서 귀인에 1점씩 채점하였다. 도덕적 정서 귀인의 하위 범주별 본 연구자와 다른 평정자간 일치도는 Pearson 상관 계수로 .89이었다.

### 3. 절차

본 연구에 앞서 2차례에 걸친 예비 면접을 실시하였다. 1차 예비 면접은 도덕적 정서 반응과 도덕적 정서 귀인에 대한 측정에 대한 질문과 탐문을 결정하고 연구 절차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2차 예비 면접에서는 도덕적 정서 반응과 도덕적 정서 귀인 범주에 대한 분석자간 일치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면접은 2000년

표 3. 도덕적 위반 상황에 대한 도덕적 정서 귀인과 예

특성	범주별 특성	예
범주 공감 (empathy)	아동이 제시된 상황 속의 인물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함	“누군가 내게 그런 행동을 하면, 저라도 화가 날 거예요.”
도덕 (moral-overt reference)	공평성 또는 공정성과 관련하여 응답함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에요”
피롭힘 (victimization)	자신의 물질적 또는 심리적 손해로 인한 고통에 대하여 응답함	“다른 아이의 청바지를 훔치면, 그 아이가 싫어하니까요”
물질적 결과 (outcome)	물건에 대한 손익과 관련하여 응답함	“그 친구가 갖고 싶어 하던 삐삐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무관심 (emotional distancing)	타인의 감정에 관심이 없고, 타인의 피해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함	“청바지를 잘 보관하지 않은 게 잘못이지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지요”

5월에서 7월 사이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신경정신과 의원과 사회복지 시설 및 인문계 중·고등학교에서 개별 면접으로 실시되었다.

#### 4. 자료 분석

도덕적 위반 행동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에서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과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과 도덕적 정서 귀인을 장애 집단과 일반 집단간  $\chi^2$  검증을 통하여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 결 과

본 절에서는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도덕적 정서 반응과 도덕적 정서 귀인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 1.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반응

다음은 본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도덕적 위반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을 비교하였다. 집단별 비교를 위하여 품

표 4.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 (N=60)

집단	기쁨	공포	당황	죄책감
일반(n=30)	31(34.4)	9(10.0)	5(5.6)	45(50.0)
장애(n=30)	48(53.3)	3 (3.3)	4(4.4)	35(28.9)
계	79(43.9)	12(6.7)	9(5.0)	80(44.4)

$\chi^2 = 8.02 \quad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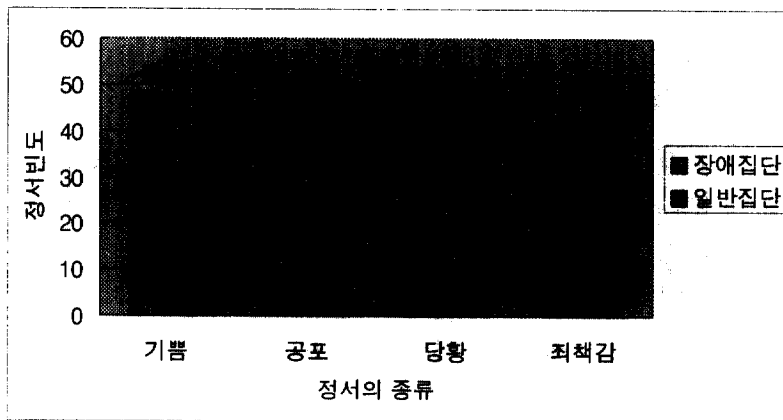


그림 1.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

행 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선택한 정서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chi^2$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표 4>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해자 입장에 대한 도덕적 정서 반응은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은 기쁨(53.3%)을, 일반 청소년 집단은 죄책감(50.0%)을 가장 많이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을 살펴 보았다. 집단 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선택한 도덕적 정서 반응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chi^2$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그림 2>에 각각 제시되었다.

<표 5>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청소년 집단과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는 분노(48.9%)가, 품행장애 집단에서는 당황(47.8%)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편 기쁨과 공포는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나,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에서 소수(기쁨, 4.4%; 공포, 2.2%)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하여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의 경우, 적절한 공감적 반응에 의한 분노 반응보다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기뻐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표 5.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 (N=60)

집단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당황
일반(n=30)	0(0.0)	12(13.3)	44(48.9)	0(0.0)	34(37.8)
장애(n=30)	4(4.4)	10(11.1)	31(34.4)	2(2.2)	43(47.8)
계	4(2.2)	22(12.2)	75(41.7)	2(1.1)	77(42.8)

$\chi^2 = 9.49 \quad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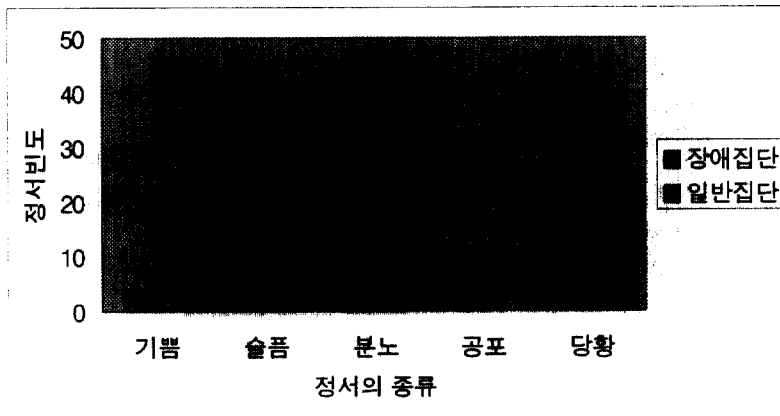


그림 2.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

2.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귀인

본 연구 대상 청소년들이 응답한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을 5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chi^2$  검증을 한 결과는 <표 6>과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을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 집단과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일반 청소년 집단은 가해자 입장에서의 정서 반응을 공평성이나 공정성과 관련된 도덕적 이유로 귀인하거나 가해자 입장에서 당하게 되는 괴롭힘으로 귀인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손익과 관련

한 물질적 결과로 귀인을 월등히 많이 했다. 다음은 본 연구 대상 청소년들이 응답한 피해자 입장에 대한 도덕적 정서 귀인을 5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chi^2$  검증을 한 결과이다. <표 7>과 <그림 4>에 이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 청소년들이 응답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은 일반 청소년 집단(45.6%)과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57.8%) 모두 물질적 결과 범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일반 청소년 집단(27.8%)에서는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7.8%)보다 도덕적 이유로 설명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6.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N=60)

집단	공감	도덕	괴롭힘	물질적 결과	무관심
일반(n=30)	9(10.0)	29(32.2)	18(20.0)	34(37.8)	0(0.0)
장애(n=30)	3(3.3)	21(23.3)	14(15.6)	50(55.6)	2(2.2)
계	12(6.7)	50(27.8)	32(17.8)	82(46.7)	2(1.1)

$\chi^2 = 9.83 \quad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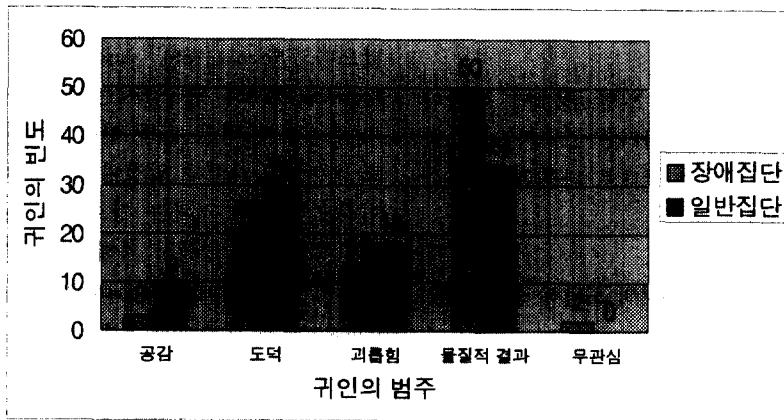


그림 3.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

표 7.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 (N=60)

집단	공감	도덕	괴롭힘	물질적 결과	무관심
일반(n=30)	7(7.8)	25(27.8)	17(18.9)	41(45.6)	0(0.0)
장애(n=30)	2(2.2)	7 (7.8)	28(31.1)	52(57.8)	1(1.1)
계	9(5.0)	32(17.8)	45(25.0)	93(51.6)	1(0.6)

$\chi^2 = 17.89$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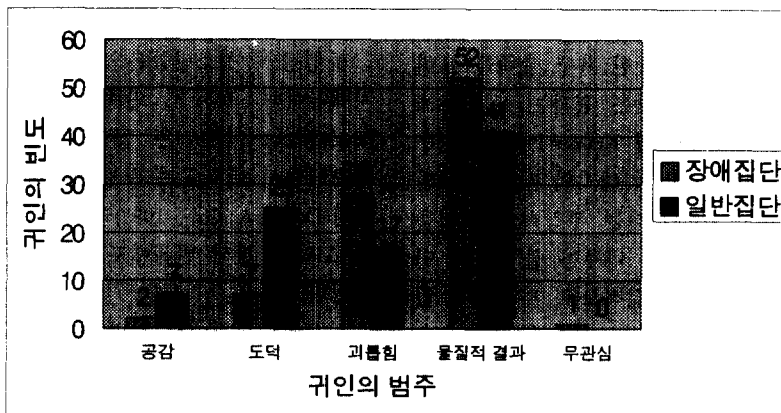


그림 4.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

## 논 의

품행장에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이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나타낸 도덕적 정서 반응 및 도덕적 정서 귀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각각 논의하고자 한다.

### 1)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

#### (1)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

가해자 입장에서의 정서 반응을 품행장에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비교하면, 기쁨 정서와 죄책감 정서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즉 품행장에 청소년 집단에서는 반수 이상인 53.3%가 가해자가 기뻐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는 50%가 도덕적 위반 상황에서 가해자 입장이라면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Arsenio와 그의 동료들(1999)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즉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 가해 행위를 통한 자기 중심적 기쁨에서 시작하여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공감적 고통을 느끼면서 가해 행위로 인한 수용자 측면에서의 해로움을 지각한 결과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기쁨을 더 많이 지각한 품행장에 청소년의 경우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보다는 주로 가해자 입장에서 괴롭힘을 통한 욕구 충족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4, 6, 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Arsenio와 Kramer(1992)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품행장에 청소년이 발달적으로 지연되어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4-10세 일반 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로부터 부정적 정서 반응으로의 연령에 따른 전이(reversal) 현상은 Nunner-Winkler와 Sodian(1988)의 연구와 Yuill, Perner, Pearson, Peerbhoy

와 van den Ende(1996)의 연구에서는 명확히 나타났으나, Arsenio(1988), Arsenio와 Kramer(1992) 및 Lourenco(1997)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평균 16세 연령 대상인 본 연구에서도 43.9%는 가해자 입장에서의 정서 반응을 기쁨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에도 도덕적 위반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이 나타난다는 Murgatroyd와 Robinson(1997) 및 Murgatroyd와 Robinson(1993)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은 어린 아동 뿐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에게도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괴롭힘 행위는 희생자 입장에서 볼 때 물리적·정서적 손실을 야기한다 하더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욕구 충족이나 물질적 획득과 같은 명백한 보상을 일으키는 것과 같아, 전 생애 발달에 확장될 수 있는 잠재적인 도덕적 갈등이나 긴장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감, 역할 수용, 도덕적 추론과 희생자의 비용을 부각하여 도덕적 갈등의 균형을 변화시키게 되는 기제를 통하여 명백한 괴롭힘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으나, 그 대상이 어린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 관점과 타인 지향적 관심이 충돌할 가능성은 발달의 모든 시기에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품행장에 청소년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통하여 지배감이나 정서적 만족을 느끼는 것(Furby & Beyth-Marom, 1992)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비행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인지적 왜곡(Dodge & Coie, 1987)과 함께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는 10%가 공포 반응을 나타낸 반면, 품행장에 청소년 집단에서는 3.3%만이 두려워하였다. 공포라는 정서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위반하는 사람 즉 가해자에게 더 초점을 두는 부정적 정서 반응(Stein &

Levine, 1987; Whitesell & Harter, 1996)이며, 공포의 유발 원인 중 하나는 예기되는 불확실성(김경희, 1996)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 집단 청소년들은 품행장애 청소년에 비하여 가해자 입장에서의 상해 또는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불확실성 때문에 무서워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으로서 일반 청소년 집단과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을 비교했을 때, 분노는 일반 집단(48.9%)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품행장애 집단에서는 당황(47.8%)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분노는 불쾌한 상황과 대인관계에서의 배신감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로서(김경희, 1996),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이에 대한 공감적 고통은 그 고통을 준 사람을 향한 공감적 분노로 변하게 된다(Hoffman, 1975). 따라서 본 연구의 일반 집단 청소년들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적 분노를 나타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는 ‘네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느낄까?’라고 질문하였을 때에도 피해자 입장뿐 아니라 상대 가해자로 인한 고통에 공감하여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공감적 정서를 인식할 수 있는 인지적 조망 수용능력을 나타내어 분노를 가장 많이 나타낸 반면,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당황을 빈번하게 나타냈는데, 이는 가해자 입장에 대한 공감적 반응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의 각성된 정서 상태를 좀 더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발달적 측면에서 다양한 심리치료의 효과에 대하여 논의한 Post(1992)와 Cicchetti와 Rogosch(1999)는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 바 있는데, 본 연구 결과와 연관시켜 볼 때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상대방의 정서 상태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에 좀더 초점을 둔 정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볼 때(Batson, et. al., 1987) 이같은 상태에 대한 심리

치료적 개입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

(1)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에서는 품행장애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물질적 이득이나 손실을,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는 옳고 그름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과 같은 도덕적 측면을 고려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적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하여 갈등적 상황에서 도구적 목적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Arsenio와 그의 동료들(1999)의 연구와 Arsenio와 Fleiss(1996)의 결과와 일치한다.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가해자에 대한 정서 귀인에서 물질적 이득에 더 많이 초점을 두고 도덕적 이유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반사회적 행위를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Post가 시사한 바 있는 품행장애 청소년의 사회 도덕적 개념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Nelson, Smith와 Dodd(1990)는 비행 청소년들의 도덕 추론에 관한 15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비행 청소년들은 성숙하지 못한 도덕 추론을 나타내며, 이같은 도덕 추론에 대한 원인은 지능이나 인지적 측면보다는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사회 인지적 어려움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2)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으로 본 연구대상 일반 청소년 집단은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보다 공감 범주에 더 많이 귀인하였으며, 도덕 범주와 관련된 귀인을 나타냈다. 또한 도덕적 정서 귀인으로 물질적 결과 범주에 귀인한 비율은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57.8%)이 일반 청소년 집단(45.6%)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 집단과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 모두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으로 도덕적 이유가 아니라 단순한 물질적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응답한

것은 Arsenio와 그의 동료들(1999)의 결과와는 상치되는 것이다. Arsenio와 그의 동료들(1999)의 결과에서는 가해자 입장에 대한 도덕적 정서 귀인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양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덕적 귀인 반응의 내용에 있어서도 품행장애 집단에서조차도 도덕적 이유를 들어서 정서 귀인을 설명한 비율이 본 연구 결과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Arsenio와 그의 동료들(1999)의 표본은 품행장애 집단이 아니라 소년원에 수용된 미국 범죄 청소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과는 차이가 있는 집단일 수 있다. 본 연구대상 청소년 중 20명은 절도 죄로 소년 심판 규칙 제 34조에 따라 4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로서,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는 의도와 관련된 도덕적 위반 청소년들이므로, 그들의 취약성과 관련된 물질적 결과로서 도덕적 정서 귀인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대상 중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되거나 아동 상담소에서 보호 위탁된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낮고 물질적 곤란을 겪고 자란 청소년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야기에 나타난 물질적 결과에 비중을 두어 답변하였을 수 있다고 보겠다.

또한 품행장애 청소년의 경우 도덕적 정서 귀인으로 괴롭힘 범주에서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이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재를 뜻한다. 이 같은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자기 자신의 고통에 치중한 도덕적 정서 귀인은 실제적 사회적 관계에서의 귀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McKeough, Yates와 Marini(1994)가 제안한 바와 같이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정서적 관계에 대한 인지적 해석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 및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대상과 관련한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에 있어서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 30명, 품행장애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면접하였는데, 이는 전체 품행장애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품행장애 집단도 사회화된 품행장애 집단과 비사회화된 품행장애 집단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품행장애 안에서도 우울을 동반한 품행장애와 같이 정서 장애 및 다른 병리적 증상, 예를들면 주의력 결핍 과 활동 장애와 적대적 반항 장애와 같이 다른 병리적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원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6세 남자 품행장애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여자 청소년 또는 연령 변화에 따른, 즉 아동기 및 청년기 병리와 관련된 다양한 대상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품행장애라는 발달에 있어서 일탈된 집단을 선택하여 도덕적 정서 반응과 도덕적 정서 귀인에 대한 면접을 통한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도덕적 정서는 각성 상태와 인지적 평가에 대한 반응으로서 현재의 자아 욕구, 유사한 상황에 대한 과거 기억과 한 개인의 지각적 변별 능력을 암시하는 중요 기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가해자 입장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타인에 대하여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Hoffman, 1991), 피해자 입장에 대하여 공감적 분노보다는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는 것은 품행장애 청소년이 보다 단순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며, 이를 통하여 발달적 지연 현상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도덕적 정서 귀인으로 보다 결과 의존적 귀인을 나타내는 것은 품행장애 청소년의 왜곡된 인지적 기대나 귀인 형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치료 및 중재 프로그램에는 타인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공감 능력을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에서 동시에 평가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한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 왜곡을 바로 잡아주며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공감 능력, 정서 조절 및 통제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계속적으로 보다 많은 연령 범위의 연구 대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단적인 변화를 추적해 보는 도덕적 정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도덕적 정서 반응과 도덕적 정서 귀인을 통하여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왜곡된 기대나 귀인 뿐 아니라 장애의 연속성과 그들의 발달 경로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않는 품행장애 청소년의 발달 경로에서의 위험 요소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 요소는 이상 발달 아동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미래의 연구에서 확인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혜자 · 한덕용 (1994). 정서의 공발생 경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3(1), 207-218.
- 김경희 (1996). 한국 청년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1-14.
- 전덕임 · 양익홍 (1998). 청소년기 품행장애와 우울을 동반한 품행장애의 다면적 인성검사 반응양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73-284.
- Arsenio, W. (1988).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situational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omoraevents. *Child Development*, 59, 1611-1622.
- Arsenio, W., & Kramer, R. (1992). Victimization and their victims: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mixed emotional consequences of moral transgression. *Child Development*, 63, 915-927.
- Arsenio, W. F., & Lover, A. (1995). Children's conceptions of sociomoral affect: Happy victimizers, mixed emotions and other expectancies. In M. Killen & D. Hart(Eds.) *Morality in Everyday Life: Development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senio, W. F., & Fleiss, K. (1996). Typical and behaviorally disruptive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socio-moral event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73-186.
- Arsenio, W., Sacks, B., & Shea, T. (1999). *Juvenile offenders' and comparison adolescents' conceptions of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empathy*.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Barden, R. C., Zelko, F. A., Duncan, S. W., & Masters, J. C. (1980). Children's consensual knowledge about the experiential determinants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968-976.
- Batson, C. D., Fultz, J., & Schoenrade, P. A. (1987). Adults' emotional reactions to the distress of others.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pp. 163-184).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n, M., Chevalier, V., & Humblert, I. (1997). Resilience, desistance and delinquent career of adolescent offenders. *Journal of Adolescence*, 20, 679-694.
- Buck, R. (1999). The biological affects: A typology. *Psychological Review*, 196(2), 301-336.
- Cicchetti, D., & Rogosch, F. A. (1999).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research. In M. Lamb and L. Sherrod(Eds.), *Handbook of clinical psychology*(pp. 433-46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hen, D., & Strayer, J. (1996). Empathy in conduct-disordered and comparison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32, 988-998.
- Dodge, K., & Coie, J. (1987).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46-1158.
- Ellis, P. L. (1982). Empathy: A factor in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1), 123-134.
- Furby, L., & Beyth-Marom, R. (1992). Risk taking in adolescence: A decision-making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12, 1-44.
- Hinshaw, S. P., Lahey, B. B., & Hart, E. L. (1993). Issues of taxonomy and comorbidity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3), 1-49.
- Hoffman, M. L. (1975). Development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07-622.
- Kaplan, H., & Sadock, B. (1988). *Clinical psychiatry*. Baltimore, MD: Williams & Wilkins.
- Kazdin, A. (1997). Practitioner review: Psychosocial treatments for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2), 161-178.
- Kohlberg, L., & Candee, D. (1991). The relationship of moral judgment to moral ac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pp. 52-73). New York: Wiley.
- Lourenco, O. (1997). Children's attributions of moral emotions to victimizers: Some data, doubts, and suggestion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5, 425-438.
- McKeough, A., Yates, T., & Marini, A. (1994). Intentional reasoning: A developmental study of behaviorally aggressive and normal boy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285-304.
- Moffitt, T. E. (1990). Juvenile delinquency and attention-deficit disorder: Developmental trajectories from age 3 to 15. *Child Development*, 62, 893-910.
- Murgatroyd, S., & Robinson, E. (1993). Children's judgement of emotion following moral transg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6(1), 93-111.
- Murgatroyd, S., & Robinson, E. (1997). Children's and adults' attributions of emotion to a wrongdoer: The influence of the onlooker's reaction. *Cognition and Emotion*, 11(1), 83-101.
- Nelson, J. R., Smith, D. J., & Dodd, J. (1990). The moral reasoning of juvenile delinque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231-239.
- Nunner-Winkler, G., & Sodian, B.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emotions. *Child Development*, 59, 1323-1338.
- Lerner, R. (1995). *America's youth in crisis*. Sage Publications, Inc.
- Losel, F., & Bliesner, T. (1990). Resilience in adolescence: A study on generalizability of protective factors. In K. Hurrelman, & F. Losel(Eds) *Health Hazards in Adolescence*. New York: De Gruyter.
- Post(1992). Transduction of psychosocial stress into the neurobiology of recurrent affective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999-1010.
- Quay, H. C. (1993). The psychobiology of undersocialized aggressive conduct disorder: A theoretical perspectiv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165-180.
- Richters, J. E., & Cicchetti, D. (1993). Mark Twain meets DSM-III-R: Conduct disorder, development, and the concept of harmful dysfunc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29.
- Rotenberg, M. (1978). Psychopathy and differential insensitivity. In R. D. Hare, & D. Schalling(Eds.), *Psychopathic Behavior*. New York: Wiley.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altzstein, H. D. (1994). The relation between moral judgment and behavior: A social-cognitive and decision-making analysis. *Human Development*, 37, 299-312.
- Shaver, R.,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C. (1987).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61-1086.
- Smetana, L. (1990). Morality and conduct disorders. In M. Lewis & S. Miller(Ed.),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pp. 157-179). New York: Plenum Press.
- Smetana, J. G., Toth, S. L., Cicchetti, D., Bruce, J., Kane, P., & Daddis, C. (1999).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preschoolers' conceptions of hypothetical and actual moral transg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269-281.
- Stein, N., & Levine, L. (1987). Thinking about feelings: The development and organization of emotion knowledge. In R. E. Snow & M. Farr(Eds.), *Aptitude, learning, and instruction: Vol. 3. Cognition, conation, & affect*(pp. 165-197). Hillsdale, NJ: Erlbaum.
- Whitesell, N. R., & Harter, S. (1996). The interpersonal context of emotion: Anger with close friends and classmates. *Child Development*, 67, 1345-1359.
- Yuill, N., Perner, J., Pearson, A., Peerbhoy, D., & van den Ende, J. (1996). Children's changing understanding of wicked desires: From objective to subjective and moral.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 457-475.

## Moral Emotions in Conduct Disordered-, and Comparison Adolescents

Maria Kyung Hee Kim      Hee-jung, Lee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moral emotions between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and normal adolescents, and 2) to assess the attributions about moral emotions. 3 types of socio-moral transgression events were used to 30 conduct disordered, and 30 comparison adolescents.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hi-squares to examine conduct disordered and normal adolescents' moral emotions and moral attributions.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duct disordered-, and normal adolescents in moral emotions and moral attributions.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expected victimizers would feel happier and less guilty following acts of victimization(physical harmness, theft, and lying) than comparison adolescents, while normal adolescents showed that victims would feel less upset and less angry than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Also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showed outcome-dependent attributions such as material gains, but normal adolescents showed moral attributions or causal-dependent attributions such as fairness and justice. Future researches on moral emotions, especially in the field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prevention, were suggested.